

-고 싶다

희망

동사 어간에 붙어 바람을 나타냅니다. 만들기는 쉽지만, 한국어에서는 말하는 사람 자신과 듣는 사람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 결합 방법

상황	형태	예
모든 동작 동사	-고 싶다	가다 → 가고 싶어요
ㄹ 어간은 ㄹ 유 지	-고 싶다	만들다 → 만들고 싶어요
과거	시제는 싶다에	가고 싶었어요
제3자	-고 싶어 하다	동생은 가고 싶어 해요
목적격 조사	을/를 또는 이/가	물을 / 물이 마시고 싶어요
형용사	-아/어지고 싶다를 사용	예뻐지고 싶어요

■ 언제 쓰나요

모든 동작 동사 어간에 -고를 붙이고 끝의 **싶다**를 활용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모음 규칙도 받침 규칙도 없고, ㄹ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어는 마음속 상태를 개인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바람을 말하거나 듣는 사람의 바람을 물을 수는 있지만, 제3자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고 싶어 하다: 동생은 가고 싶어 해요. 이 구분은 오래도록 계속되는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작은 포인트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시제는 본동사가 아니라 **싶다에** 붙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또한 **싶다**는 형용사이므로 목적어에 **을/를** 와 **이/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와 물이 마시고 싶어요 모두 맞으며, 뒤의 것이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 예문

- 1 한국에 가고 싶어요.
- 2 뭐 먹고 싶어요?
- 3 동생이 게임을 하고 싶어해요.
- 4 좀 쉬고 싶은데요.
- 5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 6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 비교

-고 싶어 하다

제3자에게 쓰는 형태입니다. 하다는 붙이면 형용사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므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원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 친구는 가고 싶어 해요.

-(으)면 좋겠다

-고 싶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으)면 좋겠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해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쉬고 싶어요. (쉬고 싶다) /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원하다

원하다는 명사 목적어를 취하며 격식적이거나 문어적으로 들립니다. 일 상에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고 싶다를 씁니다.

쉬고 싶어요. (자연스러움) / 휴식을 원합니다. (격식, 문어)

■ 주의

✗ 동생은 한국에 가고 싶어요.

○ 동생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고 싶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만 씁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싶어 하다가 써야 합니다.

✗ 저는 예쁘고 싶어요.

○ 저는 예뻐지고 싶어요.

-고 싶다는 동작 동사에만 붙습니다. 어떤 상태를 원할 때는 먼저 -아/어지다로 형용사를 변화의 의미로 바꿉니다.

✗ 어제 한국에 갔고 싶었어요.

○ 어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시제는 끝의 **싶다에** 붙습니다. 본동사는 기본 어간 형태 그대로 둡니다.